

현대차, '피지컬 AI' 호재 업고 신고가 행진…40만원 첫 돌파

CES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호평

현대오토에버 등 그룹주·관련주 동반상승

코스피 4692.64 마감…8거래일 연속 최고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차 주가가 사흘 연속 오르면서 사상 처음 40만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지난 6일 30만8000원에서 이날 40만6000원으로 31.8% 급등했다. 이날도 10.63%가 오르며 처음으로 40만원 고지를 밟았다.

키 190cm, 몸무게 90kg의 아틀라스(양

산형 기준)는 대부분의 관절을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손에는 촉각 센서를 탑재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하며 최대 50kg을 들어 올린다.

글로벌 IT 전문체계 씨넷은 아틀라스를 이번 CES 로봇 분야 최고상에 선정하면서 “올해 행사에서 확인한 디수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 프로토타입은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핵심법인 모색널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63조원에서 83조 원으로 20조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현대차 주가의 급등세는 미국 라스 베이거스에서 지난 6~9일(현지시간) 열린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키 190cm, 몸무게 90kg의 아틀라스(양

로봇·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한 다른 현대차 그룹주도 동반 상승 중이다.

같은 기간(6~13일) 현대글로비스는 37.4%, 현대모비스는 23.2%, 현대오토에버는 60.6% 뛰었다.

이날 장 마감가격은 현대글로비스 25만 7000원, 현대모비스 45만1000원, 현대오토에버 50만1000원으로, 이 중 현대모비스(14.47%)와 현대오토에버(8.91%)는 동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로봇 벤류체인(가치사슬) 내 다른 종목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지컬 AI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6일 26만8000원에서 이날 28만9000원으로 7.8%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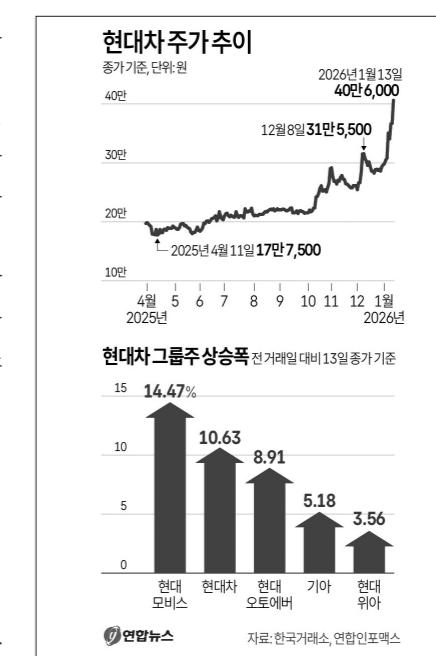
한국피아이엠(41.7%), 계양전기

(47.2%), 포메탈(19.4%), 해성에어로보틱스(23.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37.65p(0.81%) 오른 4662.44로 출발해 67.85p(1.47%) 오른 4692.6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가 4652.54와 종가 기준 최고가 4624.79를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이날까지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유기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132억원, 2785억원 순매도하고 기관은 788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83p(0.09%) 내린 948.98에 장을 마감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13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 중인 농협 20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 전남본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교류 MOU

운영농협 20곳 참여…영농 인력난 해소 기대

농협 전남본부는 13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 중인 농협 20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정섭 조합장을 비롯한 운영농협 조합장들, 전남도 농

농협 △땅끝농협 △문내농협 △황산농협 △도곡농협 등 20개소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농협들은 계절근로자 인력 교류를 활성화해 유동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 한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 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운영농협 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공동 대외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협약을 통한 계절

근로자의 운영과 통제는 인력을 공급하는 능협이 맡기로 했다.

전남본부는 만성적인 영농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광일 본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과 농업인 지원을 위해 뜻 모아주신 조합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사업 확대와 운영농협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발표

농민신문 회장·농협재단 이사장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겹쳐하던 농민신문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리친다. 또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000만원도 개인 비용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강호동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겹쳐 사임과 주요 임원 퇴진,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대국민 사과와 죄송인사를 내놨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 장애로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 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 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이번 사안을 염중히 받아들이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제조업 70%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

급반등보다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안정 경영 무게

광주·전남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지역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시각인데,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외형 확대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감지된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제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0%는 올해 경기 흐름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고 35.0%는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소폭 둔화'는 19.2%, '뚜렷한 악화'는 10.0%로 나타났다.

경영 목표 역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내수 목표를 '전년 실적 수준'으로 잡았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수출 목표 또한 '전년 수준'이 44.2%로 집계됐다. 실제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72.5%가 '안정(유지) 경영'을 선택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을 택한 기업은 18.3%에 그쳤다.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경기·수요 전망'(49.2%)이 꼽혔고 '비용·수익성 요인'(31.7%)이 뒤를 이었다.

경제 성장의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42.5%)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 기업 투자 확대'(32.5%), '수출 호조 지속'(30.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성'(45.8%)과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0.0%)가 상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8%)까지만 치며 대외 여건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44.2%)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 활성화 정책'

(38.3%),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37.5%), '환경 안정화 정책'(36.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통상 대응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 “소상공인에 홍보매체 무료 개방”

자체운영 전광판·빛고을TV 38곳…내달 10일까지 접수
16곳 지원…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상가 우선 선정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빛고을을 TV 등 38곳의 홍보 매체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경제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16개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홍보 기회를 제공받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덜고, 공익적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공모한다.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곳·빛고을티비 1곳·청와대 업체 8곳 등 총 38곳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광주시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sam102d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광석 시 대변인은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sam102d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거래소, '오전 7시 개장' 12시간 거래 추진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 도입…파생상품 24시간 연장도

한국거래소는 6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하고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래시간 연장 추진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공유했다.

현재 파생상품은 정규 시장(오전 8시 45분~오후 3시45분)과 야간 거래(오후 6시~익일 오전 6시)를 포함해 19시간 거래 가능하다. 이밖에 선진시장 추세에 맞춰 거래일부터 이를 후(T+2) 이뤄지던 주식시장 결제도 거래 다음날(T+1)로 단일화 장을 열게 된다.

거래소는 구체적인 프리·애프터마켓 시간대 결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년 말을 목표로 파생상품시간 거래시간도 24시간으로 연장 할 계획이다.

현재 파생상품은 정규 시장(오전 8시 45분~오후 3시45분)과 야간 거래(오후 6시~익일 오전 6시)를 포함해 19시간 거래 가능하다. 이밖에 선진시장 추세에 맞춰 거래일부터 이를 후(T+2) 이뤄지던 주식시장 결제도 거래 다음날(T+1)로 단일화 장을 열게 된다.

연합뉴스